

해방 후 1세대 한국 기독교철학자들의 생각

최태연 백석대 교수

1. 들어가는 말

이 논문은 해방 후 1세대 한국 기독교철학자들의 생각을 소개하고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여기에 속하는 철학자로는 김하태, 안병욱, 김형석, 조요한, 최명관, 고범서, 이규호의 7인을 들 수 있다.¹⁾ 이들은 1910년대에 출생한 김하태를 제외하고는 모두 3.1만세운동 후인 1920년대에 태어났으며 해방과 분단, 한국전쟁과 4.19, 5.16 이후 3공화국에서 제5공화국에 이르는 군부독재와 산업화를 온몸과 영혼으로 겪은 세대에 속한다. 이들 대부분은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이룩한 1990년대 초반까지 교수로서 활동했다. 따라서 이들에게 철학이란 역사적 현실의 문제 - 남북분단과 이념대결, 한국 사회의 경제적 발전과 맞물린 개발독재와 민주화의 대립 - 를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일이었다. 그렇기에 대체로 그들은 크리스천이면서도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교회와 갈등을 겪었고 정치와 거리를 두면서도 사회와 정치현실에 대해 신랄한 비판의식을 견지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에서 시작된 서양철학을 사유의 도구로 사용하면서도 항상 기독교 신앙을 대화의 파트너로 삼았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탄생과 굴곡진 발전 과정을 경험하고 바라보면서 기독교에서 답을 찾으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제 그들의 생각의 출발점에서 시작하여 귀결에 이르는 과정을 탐구해 보기로 하자.

2. 해방 후 1세대 철학자들

1) 김하태(1916~2007)

한국 기독교철학자로는 유일하게 개성에서 태어난 김하태는 기독교사학인 평양 광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입학했다. 그는 의사가 되기를 바라는 부친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신학을 택했다. 연희전문을 졸업하고 도미하여 감리교의 드류(Drew)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이 때의 신학적 영향이 그의 일생의 신학적 방향을 결정한 것 같다. 그는 신학공부 후 철학의 필요성을 느껴 남가주(USC)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53년부터 오하이오 노던(Ohio Northern) 대학교에서 철학과 교수로 있다가 1956년 귀국해서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에서 가르쳤다. 이 때 저술한 책이 《종교와 기독교》(공저, 1959), 《현대인과 종교》(1961)와 《생의 논리》(1962)다. 1961년 다시 도미한 그는 남가주한인회장을 맡으며 초기 한인사회의 지도자 역할을 했고

1) 이 발제에서는 아직 논문 집필이 미완성 상태이므로 김하태, 안병욱, 김형석, 조요한 네 철학자만을 다룬다.

70년대 중반 이민신학을 제안하기도 했다.²⁾ 1964년부터는 Whittier College의 철학교수로 재직하면서 주로 동서비교철학을 강의하고 연구했다. 이 때 쓰여진 책들이 《자아와 무아》(1974), 《동서철학의 만남》(1985), 《철학의 길잡이》(1986) 등이다. 1981년부터 85년까지 귀국하여 목원대학교 대학원장을 맡기도 했고 2005년에는 그의 90세를 기념하여 제자들이 편집한 기념논집 《궁극의 실재를 찾아서》가 발간되었다.

김하태의 철학을 한마디로 이름 붙인다면 ‘기독교 신앙과 동양적 사고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그는 한국 감리교 토착화 신학의 범주에 들어가는 종교철학자다. 그리고 그의 사상은 초기 저작인 《종교와 기독교》(1959)와 《현대인과 종교》(1961)에서부터 중후기 저작인 《자아와 무아》(1974), 《동서철학의 만남》(1985), 《철학의 길잡이》(1986)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 먼저 그는 일본 철학자 니시다 기타로(西田幾太郎)를 따라 서구의 희랍문화를 ‘유(有)의 문화로, 동양문화를 ‘무(無)의 문화로 규정하고 양자의 근본적인 차이를 강조한다.

“그러므로 서양철학에서는 실재가 한정을 받는 것이요, 형상을 입은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한정물, 유형상물을 무한정물보다 나은 것으로 보았다. 이 사상은 피타고라스가 말하는 ‘한정, Limit’에서 명백히 드러나는 것으로 ‘유’ 또는 ‘존재’는 제약자임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 반하여 동양사상은 ‘무’의 개념에 의하여 결정되었기 때문에 인도철학에서는 실재를 ‘무’ 또는 ‘궁극적 무’라고 보아 무제약자, 무분별자, 무조건자가 한정을 받고 형상을 입은 것보다 우월하다고 본 것이다. 대승불교에서 말하듯이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을 보더라도 우주의 궁극적 실재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먼저 무(공)를 감각함으로써 유를 긍정할 수 있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³⁾

김하태는 이러한 동양의 ‘무의 사상’과 만날 수 있는 서구 종교가 바로 기독교의 신비주의라고 생각한다. 기독교에는 언어를 통해 신을 규정하고 신의 존재를 이해하려는 긍정신학(Cataphatic theology, via positiva)도 있지만, 동양사상과 같이 마치 신이 ‘무’인 것처럼 비언어적으로 신을 규정하고 신비체험을 통해 신을 직접적으로 아는 부정신학(Apophatic theology, via negativa)이 존재한다. 중세 신비주의는 이 부정신학의 연장 선상이 있다. 김하태는 이러한 서구 기독교의 신비주의를 동양의 무의 철학과 연결함으로써 서양과 동양을 만나게 한다.

“이와는 달리, 신비주의 경험은 마음의 대상과 내용을 전적으로 제거해 버렸기 때문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이 공허하며 이를 ‘무(無)’라고 한다.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공(空, sunyata) 사상은 곧 이를 달리 말하며 그리스도교의 신비가 가운데 엑크하르트 같은 이는 이를 하나님과 구별된 ‘신성’(神性, Godhead)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순수한 ‘무’로 또는 ‘사막’이나 ‘황야’라고 묘사하고 있다. . . 만일 우리가 신비경험의 역리성을 인정한다고 하면, 동서철학은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신비경험의 역리성 중에 각각 다른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⁴⁾

2) 그의 ‘이민신학’의 내용은 《태평양 건너 가나안땅》(1979)에서 엿볼 수 있다.

3) 김하태, 《自我와 無我》,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4), 97~98.

4) 김하태, 《東西哲學의 만남》, (서울: 종로서적, 1985), 35~37.

결국 김하태에게 기독교는 그 신비주의적 양상 속에서 힌두교나 불교 같은 동양의 종교나 철학과 만난다. 이러한 철학적 입장은 그의 신학의 성격을 결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준다. 반대로 말하면 그의 신학적 성격이 이러한 철학적 사고를 가능하게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의 90세를 기리는 논집인 《궁극의 실재를 찾아서》의 ‘김하태 박사와의 대화’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밝힌다.

“그리스도교 초창기부터 예수님은 하느님이면서 사람이라는 신조가 생겨나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다름없는 인간으로서 하느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유명모 선생은 하느님의 신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현시키면 하느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어요. 그렇게 보면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임을 자각한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불교와 같게 됩니다. 불교에서도 우리에게 불성(佛性)이 있다고 보지요. 유명모 선생처럼 하느님의 아들을 그렇게 해석한다면 어떤 한 사람만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독단적인 견해(dogma)예요. 전통적인 크리스천으로서 사도 신경을 받아들이다더라도 우리는 적어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해석을 해서, 곧 그런 뜻이구나 깨닫고 받아들여자는 말입니다.”⁵⁾

결론적으로 김하태의 신학사상은 유명모와 상당히 유사한 사상임을 알 수 있다. 즉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무이한 삼위일체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 모두의 내재적 신성을 주장하는 일종의 ‘만유재신론’(Panenteism)에 경도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신학을 기독교의 ‘신비주의’의 전통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입장은 감리교의 신학적 전통에서 지나치게 나간 ‘종교다원주의’의 일종으로 보여진다.

2) 안병욱(1920~2013)

평안남도 용강의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이당(怡堂) 안병욱은 평양고등보통학교 졸업 후 도일하여 1943년에 춘원 이광수가 다녔던 일본 와세다대학 문학부 철학과를 졸업했다. 그가 고등보통학교 시절인 16세 때 춘원의 《무정》과 《흙》을 읽고 감명을 받아 편지를 보낸 것이 계기가 되어 도산 안창호를 알게 되었다. 그는 도산이 설립한 민족운동단체 흥사단에 가입해 활동했고 도산의 ‘무실역행’ ‘경천애인’ ‘부국강민’ 등의 사상을 전파하는 데 진력했다. 월남 후에도 그는 흥사단에서 활동하면서 흥사단 이사장, 도산아카데미 고문,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를 역임했다. 그리고 1958년부터 1964년까지 월간 《사상계》 주간을 맡아 언론자유의 투쟁에도 앞장섰다. 1959년에 송실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부임하여 1985년에 은퇴했으며 1985년 인하대에서 명예 문학박사 학위와 1998년 송실대에서 명예 철학박사를 받았다.

안병욱의 철학 활동은 전문적인 철학이론을 가르치기보다는 대중을 위한 철학강연과 많은 대중적

5) 한얼모임(편), 《궁극의 실재를 찾아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40.

철학서를 집필하는데 집중되었다. 그의 사상의 독특성은 동양의 유교경전, 서양의 휴머니즘과 실존주의, 도산의 민족주의를 기독교 신앙 속에 용해시킨 점에 있다. 그는 1920년 동갑내기 철학자이며 절친한 친구인 김형석과 김태길과 함께 '철학계 3총사'로 불리면서 수많은 저술과 강연을 통해 활동을 통해 1960년대와 70년대의 철학문화의 대중화를 주도했다. 이들 세 철학자는 급속한 산업화 시기의 인간성 상실과 가치관 혼란이라는 정신적 위기를 극복하는 인문학 지성과 사회적 가치관을 제시하는 데 온 힘을 다 쏟았다. 그러나 그가 다른 두 철학자와 다른 독특한 점은 후자가 기독교적 내지 서구적 가치관을 한국적으로 수용한 데 반해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수기치인(修己治人)의 동양적 세계관을 기독교 신앙과 접목시킨 데 있다고 하겠다. 2013년 10월 10일 향년 94세로 양구에 묻혔고 그곳에 '안병욱 철학의 집'이 세워졌다.

안병욱의 저서로는 '현대사상 강좌'라는 제목으로 《사상계》에 연재한 글을 모은 저서 《현대사상》(1957)을 시작으로 《자유의 아포리아》(1958), 《키엘케골》(1959), 《기계의 논리와 윤리》(1960), 《사색의 향연》(1962), 《철학노우트》(1963),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립》(1963), 《철학개론》(1964), 《파스칼사상》(1964), 《사랑과 신념과 사명》(1965), 《행복의 미학》(1966), 《민족의 스승 도산 안창호》(1966), 《인생은 예술처럼》(1968), 《창조와 혼돈의 장》(1968), 《현대의 삼강오륜》(1968), 《휴머니즘》(1969), 《진리의 샘터에서》(1970), 《도산사상》(1970), 《인도 사상가의 세계관》(1977), 《세계위인회고록》(1983), 《세계사와 민족의 이상》(1990), 《인생론》(1993), 《논어인생론》(1996), 《나를 위한 인생 12장》(2000) 등 50여 권에 이르는 저서를 남겼다. 전집으로는 《안병욱에세이선집》 10권이 출판되었다.

안병욱에게 동서양의 풍부한 철학사상은 기독교 신앙과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었다. 2500년간의 정신적 유산인 유교와 불교, 르네상스와 근대의 휴머니즘과 현대의 실존주의, 도산에게 영향받은 한국 민족주의가 그의 사상 속에 녹아 있으며 이 사상들은 안병욱이 모태 적부터 가지고 있던 기독교 신앙과 조화롭게 공존했다. 즉 동서양의 모든 사상은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의 산물이며 그것으로부터 진선미의 가치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아브라함 카이퍼와 헤르만 바빙크의 네덜란드 신칼뱅주의의 '일반은총'(common grace)의 신학을 포함하나 그는 그 이상으로 나간다. 먼저 유교는 그가 어릴 적부터 배우고 문화적으로 수용한 철학과 윤리 사상이었다. 그 중에서도 그는 공자의 《논어》에 지극한 애정을 보였다. 《논어》는 그에게 성경과 더불어 관속까지 가지고 가야 할⁶⁾ '감격의 원천이요, 기쁨의 샘'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결코 유교를 종교로 보지 않았다. 그는 "유교는 종교가 아니지만 천지신명 앞에 기도하는 자세를 갖는다"⁷⁾고 단언한다. 그 대신 그는 유교를 보편적 진리를 설파한 사상으로 본다. 《논어인생론》에서 그는 논어의 핵심사상을 '경천사상', '구도자 정신', '덕치주의', '인륜 중심사상'의 네 사상으로 나누고 이들을 '경천애인(敬天愛人)이란 하나의 원리로 요약한다. 그에 따르면 이 '경천애인'의 사상은 불교나 기독교의 종교적 원리와도 맞닿아 있다: "삼성(석가, 그리스도, 공자)이 일으킨 교는 그 내용이 서로 다르지만 그 근본은 하나요, 목표는 같다. 다만 그 목표에 도달하는 길이 서로 다를

6) 안병욱, 《인생론》,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2), 264.

7) 안병욱, 《논어인생론》, (서울: 자유문화사, 1996), 136.

뿐이다. 만교귀일(萬教歸一)이다. 삼교(三教)의 가르침은 그 궁극에 도달하면 결국 하나로 귀결된다. 나는 그 하나를 경천애인(敬天愛人)의 네 글자로 요약하고 싶다.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도(道)의 최고의 경지요, 진리의 마지막 도달점이다.”⁸⁾

그는 철학적 가르침인 유교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발생한 종교인 불교에 대해서도 유사한 태도를 취한다. 비록 그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고 ‘길ियो, 진리요, 생명’(요한복음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신관과 세계관을 가진 불교를 틀린 종교로 보지 않는다. 불교를 창시한 석가 역시 ‘인생의 올바른 길, 진리’를 추구했고 찾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석가가 찾은 진리가 그리스도가 가르친 진리와 궁극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불교와 기독교는 인간의 가치와 인격의 존엄성을 최고도로 강조했다. 사랑과 의(義)의 정신을 역설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다. 내 몸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외쳤다. 일체의 생명이 다 불성(佛性)을 가지므로 살생하지 말라고 하였다. 참과 정의(正義)를 무엇보다도 강조했다. 관용(寬容)과 용서를 가르치고 참회와 회개의 생활을 가르쳤다. 감사와 헌신의 윤리(倫理)를 제시했다. 하늘나라의 이상을 말했고 정토(淨土)의 유토피아를 설정했다. 순결한 생명과 맑은 혼을 노래하였다. 인내와 겸손의 법(法)을 가르쳤다. 평화의 철학과 봉사(奉仕)의 실천(實踐)을 역설했다. 기독교와 불교의 가르침을 대비할 때 어느 것이 더 높고 낮음이 없으며 어느 것이 더 깊고 얕음이 없다.”⁹⁾

이상에서 우리는 안병욱의 사상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앞선 김하태가 일종의 만유재신론적 ‘종교 다원주의’의 특징이 강하다면 안병욱은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타 종교의 가르침의 진리성을 인정하는 ‘포용주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양자의 차이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인간과 대화할 수 있는 인격체로 보느냐, 아니면 신비주의적이고 비인격적인 ‘근원’ 내지 ‘궁극적 실재’로 보느냐의 차이라고 하겠다.

3) 김형석(1920~현재)

김형석은 평안북도 운산에서 태어나 김일성과 같은 고향인 평안남도 대동군에서 자랐다. 그는 평양 숭실중학교를 거쳐 선교사의 도움으로 일본에 유학하여 가톨릭대학인 조치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 1947년 탈북하여 인촌 김성수가 세운 서울 중앙중고등학교의 교사와 교감으로 일했다. 1954년 연세대학교에 부임하여 31년간 철학과 교수로 봉직했다. 그는 안병욱과 마찬가지로 철학자며 수필가로 활동하면서 대중에게 철학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했다. 특히 그는 수필집 《고독이라는 병》과 《영원과 사랑의 대화》는 1960-70년대의 젊은이들에게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1985년 퇴직한 뒤 만 100세를 넘은 지금까지 저술과 강연활동을 하고 있다.

8) 안병욱, 《논어인생론》, 17.

9) 안병욱, 《아름다운 창조》(안병욱에세이션집, 증보 4판), (서울: 삼성출판사, 1979), 277.

김형석의 기독교 신앙은 앞에 서술한 두 철학자 - 김하태와 안병욱 - 보다 체험적이었다. 어릴 적부터 매우 병약했던 그는 평양 송실중학교 재학 시절 신앙부흥회와 기도생활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새로운 이정표를 얻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택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 후 그는 마음속에서 들리는 조용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번 들었다. 광복 직전 혼란한 상황에서 일본에서 돌아오기 위해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적극적으로 고향에 돌아오기도 했고 8월 15일 새벽에는 두 번의 꿈을 통해 일제가 패망하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사실을 미리 알기도 했다. 그의 체험의 절정은 한국전쟁 중 피난 내려간 부산에서 있었던 장로교 총회에서였다. 그는 어쩌다가 총회 방청객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총회가 두 파로 나뉘어 싸우는 것을 보고 나와 실망한 채로 길을 걷고 있을 때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내면의 음성을 들었다. 그는 이 체험 이후 그의 교회관에 큰 변화가 왔다고 고백한다.¹⁰⁾ 김형석은 그의 이러한 신앙관을 ‘성경주의’ 또는 ‘개방된 보수신앙’이라고 부른다.¹¹⁾

김형석의 철학사상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저술들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뉜다. 첫 번째는 《철학 개론》(1975), 《혜결과 그의 철학》(1978), 《철학 입문》(1988), 《윤리학》(1989), 《종교의 철학적 이해》(1992), 《역사철학》(1993), 《철학의 세계》(2002) 같은 철학개론서와 연구서다. 두 번째는 《고독이라는 병》(1959), 《영원과 사랑의 대화》(1961), 《운명도 허무도 아니라는 이야기》(1963), 《잠들지 않은 영혼을 위하여》(1979), 《산다는 것의 의미》(2005), 《백 년을 살아 보니》(2016) 등의 철학적 사색이 깃든 수필집이다. 세 번째로는 《당신은 누구이고 나는 누구입니까》(1993), 《예수》(2015), 《어떻게 믿을 것인가》(2016),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2017), 《인생의 길, 믿음이 있어 행복했습니다》(2017), 《교회 밖 하나님 나라》(2019)와 같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성찰을 담은 책이다. 필자는 이 세 범주의 책들은 서로 연결되어 그의 통일된 기독교사상을 형성하고 있다고 본다.

그중에서도 김형석의 사상의 뼈대를 이루는 철학은 그의 역사철학과 종교철학에서 발견된다. 그는 1958년 <시간의 실천적 구조: 역사적 시간관을 위한 철학적 시론>¹²⁾에서 그의 철학적 구상을 제안한다. 이 논문의 결론은 이렇다: “지금까지의 시간적 해명에서 얻어지는 영원에의 기대는 역시 형식적 시간의 무한성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오히려 내적이면서도 초월적인 시간성을 함유하는 실재 자체의 문제에서 영원(永遠)이 이해되어야 함에는 이의가 없다.”¹³⁾ 이 말은 수수께끼 같은 시간의 구조를 실제 삶의 관점에서 본다면 무한한 연장으로 보는 것이 아무 의미도 없으며 종교적인 초월의 차원인 영원과 연결된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 점에서 그의 철학적 문제의식은 하이데거에 가깝지만, 그 문제의 답은 키에르케고어와 함께 간다고 하겠다. 그의 초기의 대표적 에세이들인 《고독이라는 병》(1959), 《영원과 사랑의 대화》(1961)도 동일한 문제의

10) 김형석, 《나의 인생 나의 신앙》, (서울: CLC, 2004), 102.

11) 김형석의 ‘성경주의’ 신앙은 일본 유학 때 받은 우찌무라 간조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형석, 《나의 인생 나의 신앙》, 39, 168 참조.

12) 김형석, <시간의 실천적 구조: 역사적 시간관을 위한 철학적 시론>, 《인문과학》 Vol.2 (1958), 69-118.

13) 김형석, <시간의 실천적 구조: 역사적 시간관을 위한 철학적 시론>, 112.

식을 다루고 있다. 결국 그의 연구는 은퇴 후까지 계속되어 《종교의 철학적 이해》(1992), 《역사철학》(1993)라는 철학연구서로 결실을 맺었다. 다음의 글은 이 문제에 대한 그의 대답을 간결하게 표현해 준다.

“인간적 존재는 시간과 더불어 가능하며,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인간은 유한 속에 살면서 무한을 생각하며, 시간과 더불어 있으면서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을 영원하게 되는 것이다. 스스로의 유한성을 인정치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삶과 존재의 무한성, 즉 영원한 것을 갈망하는 것에 잘못은 없다. 철학이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면, 철학을 창출해 내는 주체인 인간은 영원에 대한 사랑에서 그 존재 의미가 주어지는 것이다.”¹⁴⁾

그러나 김형석의 철학은 종교와 역사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유한한 시간에서 영원으로 가는 과정에는 고독한 실존의 ‘성실함’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귀결되는 순전한 휴머니즘이 요구된다. 그에게 진정한 기독교는 이러한 휴머니즘의 종교며 ‘인간애’의 종교이면서 영원을 추구하는 구원의 종교다.

“그렇다면 휴머니즘의 본질은 무엇인가? 모든 것의 주체는 인간이며 삶의 목적은 인간을 위해 있다는 정신이다. 휴머니즘의 정신을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추구하고 돕는 정신이다. 그 정신을 마다할 종교는 없으며 그 뜻을 거부하는 신앙은 존재할 수 없다. . . 기독교는 휴머니즘을 포섭하면서도 초월하는 종교임을 깨닫게 된다면 모든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예수는 구약적인 규례들을 휴머니즘으로 승화시켰고, 그 휴머니즘을 다시 기독교 신앙으로 승화시키는 데 종교적 사명을 두었다.”¹⁵⁾

결론적으로 김형석의 철학은 그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친구 안병욱의 경우와 같이 서양의 휴머니즘과 실존주의를 기독교 신앙에 접목한 사상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안병욱과의 차이는 소년기부터의 체험적이고 인격적인 신앙이 그의 모든 사유의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그는 안병욱처럼 단순하게 불교나 유교를 기독교와 동일시하지 않았고 휴머니즘을 넘어 키에르케고어와 같이 영원한 세계를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거기로 도약했다는 데 있다.

4) 조요한(1926~2002)

조요한은 1926년 함경북도 경성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철학과와 대학원을 수학했다. 그는 학창 시절부터 질병에 시달렸고 장남으로서 가정 전체를 책임져야만 했다. 다행히 그는 28세인 1954년에 숭실대학교 교수로 부임해서 30년 가깝게 강의했다. 1964년에서 1966년까지는 독일 함부르크 대학교에서 철학을 연구했고 1975년에 숭실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부드러운 선비형 철학자로서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던 그에게 큰 시련이 다가왔다. 전국 기독교교수협의회 회장으로

14) 송춘문화모임(편), 《영원과 사랑 - 김형석 교수의 삶과 철학》, (철학과 현실사, 2019), 189.

15) 김형석, 《어떻게 믿을 것인가》, (고양: 이와우, 2016), 146.

있던 1980년에 ‘지식인 103인 선언’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것이다. 그는 아무 활동도 못한 채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전두환 정권의 해직 교수 복직허용 조치에 따라 1984년 9월에야 복직할 수 있었다. 1985년 8월에는 송전대학교 제5대 총장으로 선임되었으나 정부가 해직교수란 이유로 총장승인을 거부해 취임을 못했고 1989년에 송실대학교 총장에 부임하여 1993년까지 재임했다. 퇴임 후 미학 분야 학술원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베델교회의 장로로 시무하다가 2002년 76세로 소천했다. 그는 진지한 서양 고전철학자와 미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너그럽고 양심적인 종교인이자 실천하는 지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주로 그리스철학과 예술철학을 강의하였으며 저서로는 『예술철학』(1973),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간론』, 『희랍철학의 기원에 있어서의 동방의 영향』,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1988), 『한국미의 조명』(1999) 등이 있다.

조요한 역시 김형석과 마찬가지로 부모로부터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물려 받았다. 그러나 그의 고백대로 그의 세대는 “초등학교 시절에 중일전쟁을 겪었고, 중학교 시절에 태평양 전쟁을 겪었으며, 해방 후 대학시절에 6.25사변을 경험하여 전쟁 중에 많은 학우들을 잃은 불행한 세대”¹⁶⁾였다. 그가 19세에 고향에서 조국의 광복을 맞고 서울대학교 예과에 진학하여 아직 철학과를 전공하기 전에 만난 분이 우찌무라 간조의 제자였던 노평구다. 그는 노평구의 원어 신약성서연구와 고전 독회에 참석하여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배울 수 있었다. 또한 김환기 화백과의 친분으로 예술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신앙과 철학을 접목하여 생각하게 된 계기는 철학에서 박종홍이 1949년에 개설한 야스퍼스 강의를 통해서였다. 조요한 역시 해방 후의 선배 기독교철학자들처럼 유신론적 실존철학을 통해서 기독교적 사유의 실마리를 발견했던 것이다.

“야스퍼스에 있어서 철학은 실로 인간이 그 한계상황을 그 근원에서 응시하면서 자기자신의 내적 행동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이다. 내적 변화의 태도를 주지 못하는 철학은 합리주의의 빈 껍질이 되고 만다는 야스퍼스의 생각에 나는 그대로 동참했다. . . . 이제부터 철학공부를 본격화하자고 생각하던 무렵, 6.25사변이 터졌다. . . . 실존적 체험이었던 부산 피난시절에 나는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이라는 졸업논문을 제출했다. 키에르케고르는 영원에 대한 두 가지 출발점으로 무지의 지를 통한 소크라테스적 출발점과, 존재의 무의미에서 그것의 의미를 회복하는 기독교의 출발점을 들었다. 나는 석사학위 과정에서 이 두 출발점(그리스철학과 기독교)의 대치점과 상관관계를 연구 주제로 삼으려고도 했었다.”¹⁷⁾

우리에게 서양 고전철학자와 예술철학자로 알려진 조요한의 철학적 출발점은 키에르케고어와 야스퍼스였던 것이다. 그의 관심사는 그가 어릴적부터 믿어 온 기독교(헤브라이즘)과 서양적 사고의 원천인 그리스철학(헬레니즘)의 접촉점을 찾으려는 데 있었다. 그의 관심사는 《초기 희랍철학에 미친 동방의 영향》이란 석사논문으로 결실을 맺었다. 결국 키에르케고어에 대한 관심이 그를 그리스철학자며 아리스토텔레스 전문가의 길로 이끌었던 것이다.

16) 조요한,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 (서울: 한길사, 1996), 270.

17) 조요한,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 268~269.

그는 서광선 교수와의 대담에서 이 과정을 간략하게 표현하기도 했다 “나는 철학을 공부할 때부터 종교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이렇까 저렇까 하다가 철학을 선택했고 몇 번의 편력이 있었습니다만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원초부터 파내려가다가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 즉 ‘포아소크라티커’에 대한 문제를 석사논문을 썼습니다. 사실은 보편과 특수 문제를 희랍철학에서 추구하려 하다가 아리스토텔레스로 정착하게 됐어요.”¹⁸⁾

김환기의 영향으로 관심을 갖게된 예술철학 분야에서도 그의 기독교적 관점을 엿볼 수 있다. 그의 대표작 『예술철학』(1973)에서는 “미적 체험에 즉하면서도 의식 내용의 본질 직관을 시도하는 현상학적 방법의 산물”¹⁹⁾으로서 특별히 기독교적 관점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예술에 대한 글에서는 그의 기독교 신앙이 잘 드러난다.

“예수의 초상에서 우리가 그의 마음을 읽어서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작품은 제작되어야 할 것이다. 예수의 초상은 지금 여기에서 힘겹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모습이어야 할 것이다. . . 예수에게는 인간과 하느님, 땅과 하늘의 두 측면이 있다. 그는 위선적 종교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종류들아!’라고 외치는 정의의 현실에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²⁰⁾

“기독교예술은 기독교를 작품 속에 집어넣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한 기독교인으로서 작품을 제작하는 일에서 이루어진다. 만일 한 예술가가 기독교인이라면 그때에는 예술가와 기독교인이라는 두 개념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예술가의 영혼이 전적으로 자기 작품에 집중되고 작품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작품은 실로 종교적 은총을 받은 가슴에서 넘쳐나와 그 내면적인 반영을 그 미 속에서 나타낼 따름이다. 종교적 양식으로 말미암아 종교예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종교적 정신이 종교예술을 이룬다고 하겠다.”²¹⁾

조요한은 기독교예술을 예술가의 깊은 신앙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예술로 규정한다. 그리고 이 신앙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구원자로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 숭실대학교 철학과의 동료이자 그의 절친한 친구인 최명관²²⁾과 달리 그에게는 신앙에 대한 회의주의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에게 회의의 대상이었던 것은 약육강식의 일제와 북한의 공산당 정권, ‘반공’과 ‘근대화’의 이름으로 전체주의 체제를 강요하는 남한의 군부독재였다. 이런 정치 이데올

18) 조요한, <아름다운 영혼의 지성>, 《철학과 현실》 (1992. 9), 251.

19) 김병우, <인간 조요한 교수와 그의 학문>, 조요한 외,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 (서울: 종로서적, 1988), 338.

20) 조요한,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 (서울: 한길사, 1996), 55~56.

21) 조요한,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 170~171.

22) 두 사람은 같은 해에 북한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철학과와 동 대학원을 수학한 후 숭실대학교 교수로 전형적인 아카데미 학자의 길을 걷은 점에서 많은 외관상 매우 유사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두 사람의 차이점은 전자가 서양 고전철학과 미학에 관심을 가진 반면, 후자는 프랑스의 베르그손과 독일의 카시러 등의 현대철학에 경도한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두 철학자는 모두 독재정권에 매우 비판적이었지만 전자가 기독교교수협의회 회장으로서 해직 교수가 되고 후에 숭실대학교 총장으로서 현실에 깊이 관여하게 된 반면 후자는 강단에서 조용히 강의하며 제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전념한 점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걸었다.

로기에 대한 그의 비판 역시 그가 성경으로부터 얻은 유한한 실존과 영원한 하나님나라에 대한 그의 확고한 관점으로부터 나왔다고 하겠다.

3. 나가는 말

이 논문에서 필자는 이처럼 해방후 제1세대 기독교철학자들의 기독교적인 고뇌와 성찰의 흔적을 찾아가면서 그들의 개인적 성향에 따른 차이점을 밝힘으로써 한국 기독교철학의 역사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드러내고자 했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그들은 대부분 북한 지역 출신이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다. 그리고 그들이 학업을 마치고 교수와 학자로서 활동한 직장도 연세대학교(김하태, 김형석)나 송실대학교(안병욱, 조요한) 같은 전형적인 기독교대학이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큰 어려움 없이 기독교적 사고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개인의 신학적 입장에 따라 그들의 철학적 사고는 깊이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었다.

김하태가 ‘신비주의’와 ‘종교다원주의’를 긍정하고 전통적인 인격적 신앙을 포기한 반면에 안병욱은 기독교 포용주의의 길을 택했다. 그렇지만 김형석과 조요한 같은 철학자들은 인격적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시하는 개신교의 독특성을 잘 드러낸다. 또한 그들이 철학에 접근했을 때 그들을 반겼던 철학은 키에르케고어의 실존철학이었다. 한가지 또한 엿볼 수 있는 점은 그들 모두는 교파에 상관없이 기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형석, 《나의 인생 나의 신앙》, (서울: CLC, 2004).
송춘문화모임(편), 《영원과 사랑 - 김형석 교수의 삶과 철학》, (철학과 현실사, 2019).
김하태, 《自我와 無我》,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4).
김하태, 《東西哲學의 만남》, (서울: 종로서적, 1985).
안병욱, 《인생론》,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2)
안병욱, 《논어인생론》, (서울: 자유문화사, 1996)
안병욱, 《아름다운 창조》(안병욱에세이선집, 증보 4판), (서울: 삼성출판사, 1979)
조요한,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 (서울: 한길사, 1996)
조요한,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 (서울: 한길사, 1996).
송춘문화모임(편), 《영원과 사랑 - 김형석 교수의 삶과 철학》, (철학과 현실사, 2019).
한얼모임(편), 《궁극의 실재를 찾아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논 찬 문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표논문 제목	해방 이후 1세대 기독교철학자들의 생각	발표자	최태연
		논찬자 (소속)	양성만 (우석대학교)

최태연 교수의 “해방 후 1세대 한국 기독교철학자들의 생각”은 최 교수의 <한국의 기독교철학자 100년> 기획 연구의 두 번째 부분이다. 제1부는 2020년에 “일제강점기의 기독교철학자”라는 부제로 발표되었다. 세 번째 논문까지 작성되면 이 거대한 기획이 완결될 것이다. 최 교수님의 힘찬 발걸음에 찬사와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린다. 덕분에 한국의 많은 기독교 철학자들을 새로 알게 되었고, 단편적으로 알던 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첫 번째 논문에서 논자는 일제 강점기의 기독교 철학자들인 채필근, 최현배, 정석해, 한치진, 김기석 5인을 다루면서, 신앙의 전제 위에서 철학을 한 사람, 신앙을 가졌지만 철학적 비판을 추구한 학자, 신앙적 배경을 가졌지만 타 종교나 일반 학문과 접목을 시도한 학자로 구분해서 다루었다. 이 두 번째 논문은 해방 후 1세대 철학자들 7인 중 일부인 김하태, 안병욱, 김형석, 조요한을 다루고 있다.

김하태는 미국에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한 후 미국의 대학들과 목원대학교에서 철학을 연구하고 가르쳤다. 그는 기독교와 동양사상과의 대화를 시도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종교를 더욱 보편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승실대 철학과 교수였던 안병욱도 수기치인의 동양적 세계관을 기독교 신앙과 접목시키려 하였다. 그는 삼성(석가, 그리스도, 공자)이 일으킨 교는 내용이 서로 다르긴 하지만 그 근본은 하나요 목표는 같다고 보았다.

김형석 교수는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기독교 철학자다. 이분에게서도 서양의 휴머니즘과 실존주의를 기독교 신앙과 접목하려는 시도를 본다. 그렇지만 체험적이고 인격적인 신앙이 그의 사유의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고 논자는 평한다.

조요한은 전두환 시절 해직 교수로 기억된다. 그리스 철학과 예술철학을 강의하고 연구하였다. 그의 현실 참여는 유한한 실존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고한 관심으로부터 나왔다고 평가된다. 논자가 밝혔듯이 아직 집필 중인 논문이므로 구체적인 논찬은 시기상조다. 그보다는 이 연구에 대한 논평자의 소망을 내비치는 것이 어울릴 듯하다. 이 글은 한국 기독교인 철학자들의 생애와 사상을 잘 요약했는데, 이 철학자들에게서 보이는, 기독교와 동서양 사상을 접목시키려 하는 일반적인 경향성에 대한 사회학적 설명이 필요할 듯하다. 철학사 논문이 되려면 이들의 철학 사상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겠다. 특히 철학과 기독교 사이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관련시키려 했으며 그 시도가 어떤 결과를 빚었는지,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지적해 주면 도움이 되겠다. 논평자 생각으로는 내실 있는 철학사가 되기 위해서는 각 기독교 철학자들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듯하다.